2010.06.21 미래정책연구실

□ 영국, 보조금 철폐 시나리오 연구 결과 발표

[Agra Europe(2010.06.11) 주요 내용]

- 최근 영국 환경식품농업부(DEFRA)에서 발표한 '유럽농가의 자생력'(Farm viability in the European Union) 보고서에서 EU의 직접지불보조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.
 - 만약 현재의 포괄적 직접지불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, 농가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자생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함.
- LEI가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비용 구조 및 지대에 대한 보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, 새로운 형태의 농가 보조금도 없다는 가정을 도입하고 있는데, DEFRA는 이러한 '최악의 시나리오'가 보다 현실적인 수단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고 주장함.
- 보고서에서는 EU가 보유한 보조금 축소와 무역 자유화 시나리오를 토대로, CAP 보조금이 대폭 축소될 경우 농가 파산과 경작 포기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.
- 직접지불제 폐지 시 많은 농가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됨. LEI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농가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, EU의 직접지불제 없이 노동·자본 투입비용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농가는 전체 EU 농가의 18%에 불과함.
 - 최대 64.4%의 농가는 흑자 소득을 낼 수 있으나, 노동과 자본 투자비용, 그리고 농가의 기회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.
 - 현재도 소득이 없는 6.3%의 농가는 배제하더라도, 11% 이상의 농가는 보조금 없이는 적자 소득이 전망되어, 향후 비농업소득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임.
- 국가별로는 영국·스웨덴·덴마크·아일랜드와 일부 프랑스·독일·헝가리·슬로바키아에서 보조금 철폐로 인해 소득이 급감할 전망이다.

- 작목별로 분류해 보면, 원예·축산 등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농가는 보조금 폐지로 인한 소득 감소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 - 그러나 EU 전체 농지의 95%에 달하는 곡물·낙농·경축순환농업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며,
 - 이러한 유형의 농가에 일어나는 소득 압력으로 인해 농업 구조 뿐 아니라 농촌 활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함.
- 포괄적 직접지불제의 대안으로 농가 파산과 경작 포기를 방지할 수 있는 '목표지불제(Targeted Payment)'를 제안함. 분석 결과, 현행보다 강화된 목표지불보조제도를 도입한다면 농가 파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.
- 이 연구는 CAP 수정에 있어 영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.
 - 지난 주 스페인에서 열린 비공식 EU 농업부장관 회의에서 영국의 신임 환경식품농업부(DEFRA) 캐롤린 스펠먼 장관은 향후 CAP 수정에 대해, 현재의 직접보조 시스템이 영국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함.

□ 이태당사국 간 입장 차이로 DDA 면화 협상 교착

[Agra Europe (2010.06.11) 주요 내용]

- DDA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면화 교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함.
- Geneva insiders는 최근 미국과 개도국 간에 면화에 대한 WTO 협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, 이에 대한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함.
 - 아프리카 'Cotton Four'를 대표하는 부르키나파소 대표단은 WTO 회원국 간 면화협상 타결에 실패하였다고 밝힘.
 - 한편, 수출국 G-20그룹을 대표하는 브라질은 개도국이 직면하는 '불

공정 경쟁'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음.

- **인도**는 절차 상의 문제를 들어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, **중국과 아르헨티나** 역시 면화를 배제하고 DDA협상이 체결될 수는 없다고 입장을 표명함.

○ 면화 이슈는 미국의 자국 내 면화 보조금 감축 의지에 달려있음. 그러나 미국은 면화 협상 및 보조금 감축에 대해 DDA 일반 협정의 기본 틀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, 미국은 면화에 대해 시장접근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다른 이권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.